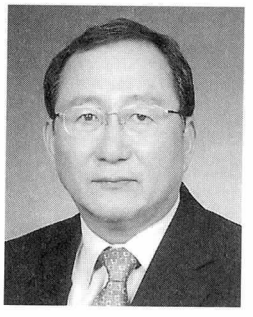
새로운 각오와 비전으로



김 정 호
(사)한국사료협회 회장

전국의 축산인과 사료산업 종사자 여러분, 戊子年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알찬 계획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셨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사료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활기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국내 사료산업은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치솟는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 해상운임의 폭등, 개방화로 인한 국내 축산기반의 위축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다 그러하듯이 그 산업의 성장에너지는 바로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솟아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협회 업무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급변하고 있는 주변환경변화에 맞춰 당면한 문제를 보다 근원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과 같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원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식량위기는 엄청난 물량의 곡물을 바이오원료에너지 대체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서 비롯되어 과거 80년대의 식량위기와는 달리 구조적이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국내 사료산업으로서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료원료구매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사료곡물의 해외자원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료산업과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관련 축산업계와의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료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80~90년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료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사와 함께 준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료업계의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사료업계, 그리고 축산농가가 합심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축산업계의 지원을 적극 끌어 들이는 노력도 협회가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료산업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강과 행운을 가져오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